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15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한 회당  
VIP 손님 20여 명을 모시고  
경복궁으로 고궁 나들이를  
떠났다. 전문가로부터 세종과  
경복궁에 담긴 옛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진진한 역사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글 김봉연 기자  
사진 김기환 기자

## 세종이야기와 함께하는 고궁 나들이

KEB하나은행은 재미있는 세종이야기와 함께 경복궁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는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 연구소장이 '경복궁과 세종'에 관한 강의를 맡아 깊이를 더했다.

세종은 경복궁에서 즉위한 조선의 첫 임금이다. 재위 중반부인 1433년(15년)부터는 경복궁과 기타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경복궁을 조선의 실질적인 법궁으로 완성한 임금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경복궁 나들이는 흥례문을 지나 금천교를 지나면서 시작됐다. 금천교에는 하늘의 사슴이라 불리는 '천록' 4마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물길을 따라 들어오는 근심걱정을 막아준다고 한다. 손님들은 각자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내는 기분으로 금천교를 지나 근정전으로 향했다. 경복궁에서 가장 유명한 근정전은 경복궁의 으뜸 궁궐로 '지도자가 정말로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다. 세종은 인재를 기르는 일과 유능한 인재를 뽑아 일을 맡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 집현전을 확장하는 데 힘썼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근정전 동쪽 응문루를 지나 만나는 동궁전 뜰락. 이곳은 근정전이나 교대전 부근처럼 사람들로 붐비지도 않으며 멀리 인왕산과 북악의 풍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향원정, 건천궁을 지나 다양한 궁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덧 경희루에 도착했다. 3,000여 평 넓이와 수심 1.9m의 호수 위에 세워진 경희루는 우리나라 고궁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희루 앞에 세워진 수정전은 사정전과 집현전이 있던 자리로 세종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KEB하나은행은 고궁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봄날의 멋진 추억을 손님들께 선물했으며, 행사에 초대된 손님들은 "세종에 대한 관심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깊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손님들 수준 높은 문화행사에 초대해 역사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 꽃길 따라 떠나는 국내 웰빙 투어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2회에 걸쳐 VIP 손님 40여 명을 모시고 경남 진해와 경북 문경새재를 돌아보는 국내 웰빙 투어를 진행했다. 벚꽃의 향연과 역사 속 시간 여행이 어우러진 1박2일은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글 김봉연 기자

35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우는 '진해 군항제'는 4월에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다. KEB하나은행은 VIP 손님들에게 그 진풍경을 선물하고자 아름다운 웰빙 투어를 진행했다.

매년 4월 열리는 군항제는 올해 '해군사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됐다. VIP 손님들은 진해에 도착해 먼저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군항제 기간에만 개방되는 영내를 둘러보며 아름드리 벚꽃 터널을 거닐고 군함에 올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다. 또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거북선 내부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진해 시내에 위치한 '문화공간 흑백'으로 옮겨 색다른 휴식 시간을 가졌다. 10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공간 흑백'은 서양화가 고(故) 유태렬 화백이 운영하던 곳으로 진해의 유일한 클래식 찻집이자 이중섭, 김춘수, 윤이상, 서정주 등이 거쳐 간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다. 옛 모습 그대로 한 자리를 지켜 온 흑백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추억의 향수를 되살려 주었다. 현재 흑백은 유 화백의 딸인 피아니스트 유경아 씨가 뒤를 이어 음악회나 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창원 근대건축물로 지정되었다. 클래식 음악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긴 손님들은 본격적인 벚꽃 구경을 위해 여좌동 '로망스 다리'와 경화역으로 옮겨 말 그대로 황홀한 꽃천지를 만끽했다.

이튿날에는 옛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경북 문경으로 향했다. 손님들은 한옥마을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한국의 여유로운 정취에 푹 빠지기도 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둘러보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즐겼다. 건강식으로 정성껏 차려진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수 있는 수안보 온천으로 향했다. 따끈한 물에 온몸을 담그니 그동안의 피로가 모두 사라진 듯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이번 여행을 함께 한 손님들은 "특급호텔 숙박과 정갈한 식사,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계절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고귀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들의 몸과 마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문화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

